

저금리 시대 끝… 대출자 부담 ↑

한은, 기준금리 1.75→2.25%로 사상 첫 0.50%p 인상
2020년 제주 GR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1% 전국 최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내린 적은 있지만 0.50%p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0.25% 올린 데 이어 연속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2.0%)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통상적인 금리인상 폭인 0.25%p가 아닌 0.50%p 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을 밟은 것은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압력이 심각해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6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이후 23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1년간 물가상승전

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지난달 3.9%로 10년 2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아 0.25%p의 기준금리 상승으로는 고물가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늘린 도내 자영업자와 청년층,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한은경제통계시스템상 5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20년 기준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로 전국평균(61%)을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2021년 3월말 기준 도내 가구당 평균부채는 7764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았다. 4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7조3011억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1년 전보다 0.4% 늘어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늘린 가계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의 대출도 크게 늘어 4월 말 기준 잔액은 17조46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3.86~4.36%로, 1년 전(2.56~2.97%)과 비교하면 상단이 1.39%p 더 높아졌다.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60~5.07%로 1년 전(2.73~3.35%) 대비 상단이 1.72%p 높아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커지는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과 자영업자와 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최근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제주시에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9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제주 기름값 두 달 만에 하락세로

어제 평균 휘발유값 ℓ당 2039원·경유 2106원
국제유가 하락·정유업체도 공급가 인하 움직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제주의 기름값이 두달 만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4.71원 내린 리터(ℓ)당 2039.24원, 경유 가격은 15.42원 내린 2106.87원이다.

지난 5월 17일 2000원대를 기록한 뒤 계속 오르던 제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4일 2100원대, 6월 28일 2200원대를 연이어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200원대를 상회하던 경유 판매 가격 역시 마한

가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 전(6월 30일)과 비교하면 제주의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날 현재 178.63원, 172.88원 각각 떨어졌다.

특히 그간 전국 평균을 웃돌던 제주의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 가격(휘발유 2074.81원·경유 2120.16원)보다 35.57원, 13.29원 각각 낮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매일 전국 최고가를 찍었던 제주는 이날 대구(휘발유 2043.94원·경유 2090.06원)에 이어 기름값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반면 서울의 기름값(휘발유 2135.53원, 경유 2177.16원)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1900원대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했다. 이날 기준 도내 주유소들은 적게는 1984원에서 많게는 2150원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1900원대 휘발유를 판매하는 도내 주유소는 132여곳 중 13곳 정도였다. 경유 가격은 2054~224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같이 기름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이뤄진 데 이어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계속 오르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내 정유업체들도 이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사상 첫 40만명 넘는 취업자… 속은 빈곤

제주 6월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
60세 이상 증가율 최고·무급가족종사자도 14.5% ↑

제주지역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고용 상황이 개선됐나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사업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또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고, 인력난과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무급가족종사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의 ‘6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40만2000

명으로 1년 전보다 4.1%(1만6000명) 증가했다. 도내 취업자가 4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자는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5%(5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로 1.2%포인트(p) 떨어졌다.

이처럼 고용지표는 양호한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고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직 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두 자릿수 증가해 상용근로자 증가폭을 크게 앞섰다.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취업자는 7만1000명으로

7.4% 늘었고, 20대 취업자는 4만6000명으로 3.1% 늘었다. 40대 취업자는 2.7% 늘어난 9만6000명, 50대는 1.7% 증가한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5~19세 취업자는 4000명으로 25.0%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13만5000명으로 0.4% 줄어든 가운데 자영업자가 10만6000명으로 3.9%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9000명으로 14.5% 늘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3만명, 고용원이 없이 나홀로 꾸려가는 자영업자는 7만6000명으로 71.7%를 차지했다.

임금근로자는 2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는데, 상용근로자가 4.4% 늘어난 1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6만1000명으로 17.7%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2만3000명으로 2.9% 줄었다.

문미숙기자

내달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문의 1533-0100. 박소정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EUREKA

최고품질로 대성공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히 철저 전화 주선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자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점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서시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장마때 분양

유 라 조 생 2년생

천 헤 향 2년생

감 평 2년생

황 금 향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옴 3,4년생, 남심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달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망자1~2년생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민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